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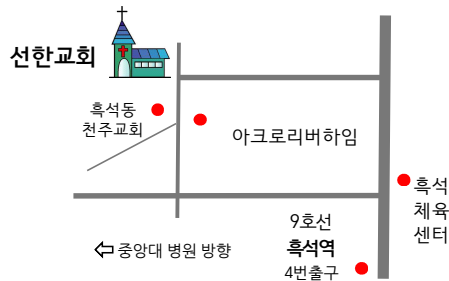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인도: 임춘배 목사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정용준 목사
3부 오후 1:00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 독 문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찬 양 과 경 배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4장 1~10절	삼상 11:1~9	
설 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삶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소프라노 파트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사회: 임춘배 목사
오후 3시 30분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방성자 집사		
말 씀	이사야 24장 13~23절		
설 교	온 세계에 임할 최후 심판 예언 (임춘배 목사)		
찬 양	492장(통일찬송가 544)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후 7:30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시편 97편 1~1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루디아회입니다.
- 4) 주차 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해 외 선 교

해외 선교 물품 마감을 오늘까지 합니다.

* 여름 옷(겨울 옷X), 학용품만 받습니다.

3. 떡 제 공

김현석 심지숙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정욕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사는 신앙이 되도록.
-----------	--	--

찬송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통512)

본문 : 요한복음 9장 13~41절

말씀 :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새벽·수요예배, 금요 철야를 드리고 수차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질병 회복뿐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성도다운 삶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믿음을 이유로 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믿음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시각 장애인은 자신이 당하게 될 핍박(유대교에서 출교)을 알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실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몰릴 수 있음에도 자기 생각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요 9:39)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25)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 목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약 4:1~10)

서 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1. 싸움의 원인: 정욕과 교만

- (1)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1절)
- (2)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2,3절)
- (3)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4절)
- (4)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5절)
- 본 론 (5)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7,8절)
- (6)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10절)

2. 교훈

- (1)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 (2) 정욕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 (3)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결 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서창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방성자 집사	조윤익 장로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요셉회

매일 Q.T.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금홍과 은혜	날짜 : 5월 27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 길에서		
본문	열왕기상 21:17~29		
말씀요약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과 바아사의 집처럼 멸하실 것이라 전합니다. 아합을 충동해 악을 행하게 한 이세벨은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며 그의 최후도 전합니다. 아합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겸비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그 아들 시대로 연기하십니다.		
묵상질문 1	엘리야를 통한 심판 선언 21:17~26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가문에 어떤 심판을 선언하셨나요? 부부 혹은 지인이 서로의 죄를 깨우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묵상질문 2	겸손히 회개하는 아합 21:27~29 아합의 겸비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금홍을 구하며 지금 내가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21장 29절 '겸비함'이란 무릎 꿇고 엎드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이 겸비하자 하나님은 재앙을 그의 아들 시대로 연기하십니다. 이는 아합의 죄를 아들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도 심판을 죄 가운데 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겸비한 자는 금홍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느냐보다 겸비함으로 행하느냐를 보십니다. 겸비함은 징계가 예정된 사람에게 기회와 소망을 선물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에도 깊은 탄식과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소서. 이 땅의 삶을 통해 거룩한 율령을 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개인 성경 공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	
찬양과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425) 주님 말씀하시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중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예비 집회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임했고,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1907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03년 원산에 모인 선교사들에 가운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데,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개의 불씨가 1907년 평양에까지 와 닿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유명한 에스라의 부흥 사경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고 기뻐하며 영이 살아나는 진짜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나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말씀나누기	열왕기상 22:13~28
묵상포인트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는 말에 더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참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거짓은 여러 가지 말로 꾸며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 없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관찰과묵상	아합왕이 전쟁을 할지 말지에 관해 진실하게 말해 달라고 하자, 참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 대답했나요?(17절)
적용하기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영의 현혹이나 속임수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불완전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따르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정직한 길과 악한 길	날짜 : 5월 31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본문	열왕기상 22:41~53		
말씀요약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폐하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립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아합에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목상질문 1	유다 왕 여호사밧 22:41~50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나의 일생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북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22:51~53 아버지(아합)와 어머니(이세벨)의 길을 따른 아하시야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최근 일어나는 일 중 내가 분별하고 멀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열왕기상 22장 53절 하나님 백성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배할 대상은 살아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했다는 말은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발이 옳은 길을 걷고, 제 입이 옳은 말을 하고, 제 손이 옳은 일을 하게 하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 작은 죄도 멀리하며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전쟁을 앞두고 먼저 찾아야 할 대상	날짜 : 5월 28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열왕기상 22:1~12		
말씀요약	유다 여호사밧왕이 북 이스라엘 아합왕에게 내려갑니다. 아합은 아람 왕의 손에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유다 와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여부를 하나님께 묻길 원하자 아합은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은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어서 흉한 일만을 예언한다는 미가야도 부릅니다.		
목상질문 1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 22:1~5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왜 하나님 뜻을 묻고자 했을까요?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뜻을 묻나요?		
목상질문 2	승리를 장담하는 선지자들 22:6~12 여호사밧은 왜 다른 선지자를 찾았나요? 하나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열왕기상 22장 8절 하나님 말씀은 'Yes'든 'No'든 마음을 열어 경험해야 합니다. 아합은 선지자들을 부를 때, 늘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습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단어까지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취사선택해서 듣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고, 듣기를 원치 않는 말에는 냉담한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제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Q.T.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날짜 : 5월 29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본문	열왕기상 22:13~28		
말씀요약	미가야는 사신으로부터 길하게 예언하라는 권고를 듣지만,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미가야는 처음에는 조롱 조로 북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나 아합이 진실을 요구하자 패배를 예언하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묵상질문 1	미가야의 예언 22:13~23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위기를 피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질문 2	미가야를 옥에 가둠 22:24~28 아합은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 미가야를 어떻게 대했나요? 미움받더라도 내가 옳은 소리를 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22장 14절 듣기에 '좋은 말'과 전해야 하는 '옳은 말'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듣기에는 좋은 예언을 하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말은 인간적인 따뜻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잔소리에도 유익함이 있을진대, 하나님의 쓴소리는 보약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거짓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유일한 진리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진리를 감추고 왜곡하는 사탄의 꾀에 속지 않고, 진리의 선명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Q.T.		우연 속에서도 성취되는 하나님 심판	날짜 : 5월 30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본문	열왕기상 22:29~40		
말씀요약	아합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쫓다가 그가 아닌 것을 알고 멈춥니다.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묵상질문 1	변장한 아합 22:29~33 아합은 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나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거나 하나님 뜻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아합의 죽음 22:34~40 아합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21:29) 결국 그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에 내가 드러내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열왕기상 22장 34~35절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변장으로 생명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심코'라는 말은 목표 없이 활을 쏘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합의 계획을 무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철통같은 갑옷과 변장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필요한 자세는 '내려놓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드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제 뜻대로 된다고 교만하거나 제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신뢰하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